

# 광주시, ‘AI 3대 강국’ 실현 박차… 국가 AX 혁신거점 조성

〈인공지능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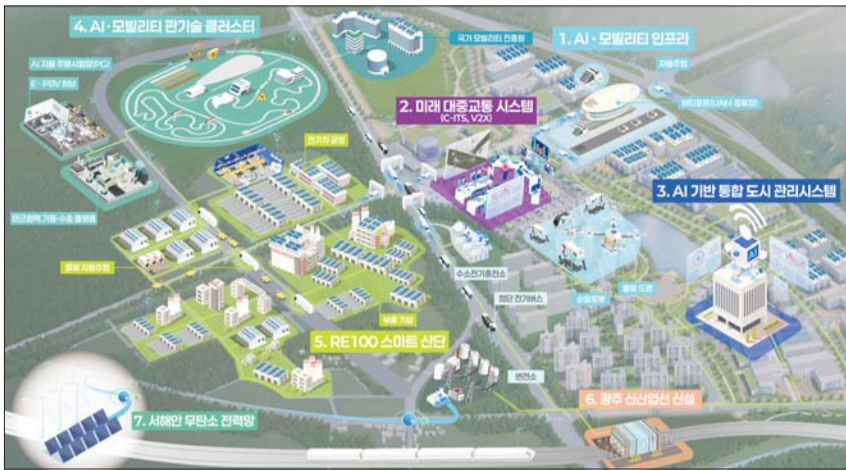
내년도 AI 예산 1634억 투입  
AI 기반시설·컴퓨팅 자원 확충  
광주형 규제프리 도시모델 추진

광주시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인 ‘국가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거점 광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으로 확보한 3조9497억원 중 AI 예산 1634억원으로 대규모 인공지능 기술 실증,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8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에 국가 신경망처리장치(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에 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산 NPU의 실증·활용을 위한 공공형 컴퓨팅센터를 조성하고 범용 소프트웨어 환경을 구축해 NPU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192억원을 투입해 광주에 구축돼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산업계·학계 등이 인공지능 연구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광주 인공지능·모빌리티 융합 시범도시.

/광주시청

확충하는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현장의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전환(AX)할 수 있도록 10억원의 예산으로 피지컬 AI 기반 휴머노이드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도시 전역을 인공지능 기술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는 ‘광주형 규제프리 도시모델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마중물 예산 5억원을 활용해 기존 규제특례의 적용 범위를 산업·서비스 단위에서 도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광주형 규제프리 도시규모 실증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실증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 297억원도 확보했다.

국산 NPU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22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60억원)도 구축한다.

인공지능과 미래차(모빌리티)가 결합한 도시 구축을 위한 ‘미래도시모델 조성 계획’ (10억원)을 수립하고 6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단위에서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AI특화병원 조성에 30억원이 투입되며 지역의 전남대·조선대·기독병원을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실증연구지원센터 구축(16억원) 사업도 본격화 한다.

의료·바이오·부티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AI헬스케어 실증 콤플렉스 조성(25억원), AI 부티기기 기술 고도화(10억원) 등도 진행된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 양성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에 ‘소프트웨어(SW)마에스트로’를 도입하고,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광주 AI 과학영재학교 설립 예산도 31억원을 반영하여 인재육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최대조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는 국산 반도체(NPU), 최첨단 자율주행, AI병원 등 국가 인공지능 핵심 전략을 최초로 실증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정교한 사업 기획과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광주가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이끄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중국 후난성 일원을 방문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中 후난성과 연대관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중국 후난성 정치협상회의의 공식 초청에 따라 문승우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중국 후난성 일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후난성 정형 모만춘(毛万春) 주석이 문승우 의장단에게 직접 공식 초청장을 송부하며 성사된 것으로, 양지역 간 우호 협력의 폭을 넓히고 공고한 연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당면 과제인 ‘메가시티 광역 통합’,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지역 인재 육성’ 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후난성의 주요 성공 모델을 시찰하고, 분석 결과를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정훈 기자

## 울산의대, 본교 중심 교육체제 구축

설립 37년 만에 울산서 의대 교육  
내년까지 교수연구실 등 추가 구축

울산의대가 설립 37년 만에 울산 본교 중심 교육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지역 의료 인재 양성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울산시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달 해부학 실습실 등 핵심 교육 기반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울산에서 본격적인 의대 교육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988년 설립 이후 부속병원 부재로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을 진행해 오던 울산의대가 비로소 지역에 뿌리 내리게 됐다.

시와 울산대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의대의 본교 중심 교육을 목표로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 울산대는 울산 본교 중심 교육을 위한 입시요강과 교육 체계

정비가 이뤄졌다. 지난 2023년에는 의대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동구 전하동(구)한마음회관 소유권 이전 협의를 진행하고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밟아왔다. 이후 올해 3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아산의학관을 개관하고, 교육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단계별 계획이 완료됐다.

다만 의과대학 교수의 안정적인 정착과 연구를 위해 교수연구실과 연구공간을 내년 3월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울산대와 ‘지역 의료와 울산의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의료 연구 역량 강화, 의료·생명과학(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미래 의료산업의 성장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5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등이 청년 식품기업 대표 및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전북도, K-푸드 청년기업 지원방안 논의

청년식품창업센터서 현장 목소리 들어

정부와 전북도가 손잡고 청년식품기업을 K-푸드 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키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년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메디프레소’, ‘로컬웍스’, ‘백경증류소’, ‘다격’, ‘비응도등대’ 등으로, 각 사 대표들이 직접 자사 제품과 성장 과정, 애로사항,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청년식품창업센터의 기술지원, 시험분석, 패키지 제작, 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제 제품개발과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제품개발과 수출 확대 과정에서 청년 대표들은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전했다.

/전북=정훈 기자 taiji1819@

## ‘영덕 고래불역’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동해중부선 철도관광 활성화

경북도가 동해중부선의 영덕 고래불역을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곳에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플리마켓,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젊은 세대와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새로운 체류형 문화거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동해중부선 관광 특화 철도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 동해안의 철도역을 관광클러스터로 만들 계획이

다. 중장기적으로는 철도역과 주요 관광지를 잇는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동해안권 신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경북 동해안권 철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5일에는 고래불역에서 ‘고래불역 관광거점화’ 시범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고래불역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와 영덕군, 경북문화관광공사, 코레일 대구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 하동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

천연물 기반 식품소재 연구·사업화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동군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종 지정했다. 올해 1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육성지구 지정이다.

이로써 생명공학 기술을 농업·축산업·식품 분야에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의 거점이 하동읍 화심리 일원에 조성된다. 하동군의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해 천연물 기반 식품 소재 연구 실증

과 제품 사업화를 지원한다.

하동군은 육성지구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3대 연계축을 추진한다. 먼저 2025년 전국 최초로 선정된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선도기업·청년 참여 기업·생산자 간 협업 기반의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동 가공·물류·기술 지원 인프라를 마련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R&D 및 기능성 소재화와 혁신벨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한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 포항시

###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선정

포항시는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6차 공모에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으며, 참여 기업 자부담 2억원을 더해 총 6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은 산업단지 내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목표로 노후한 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를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복지·근로환경·외관·녹지 4개 분야 중심의 맞춤형 개선이 진행되며 총 10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포항·경주·울산

### 해오름동맹 생활체육 대축전

포항·경주·울산시의 해오름동맹이 지난 7일 경주체육관에서 ‘2025 해오름동맹 생활체육 대축전’을 열고 상생·화합을 다졌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 시민 500명이 참가한 이날 대축전에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과 3개 도시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체육회장과 관계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3개 도시의 상생·화합의지를 확인했다.

명랑 운동회 및 시별 대항으로 시의원 족구대회,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생활 체육 경기가 열렸다.

한편, 해오름동맹은 지난 2016년 포항·경주·울산 3개 도시가 동해남부권의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결성한 협력체로, 경제·산업·문화·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김진곤 기자